



# 86 낙농업계를 회고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김 남 응

## 1. 낙농은 어려워졌다.

86년의 낙농업계는 어수선한 한해였다. 뒤숭숭한 꿈을 꾸듯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얽히고 또 얽히어 돌아갔고 말들이 많았으면서도 무엇하나 뚜렷함이 없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굳이 뚜렷한 변화를 찾으려고 한다면 낙농업계에 일대 전환점이 왔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더욱 낙농가들에게는 긴장이 고조된 해로 종전과 같은 경영방식을 가지고는 낙농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재 많은 낙농가들은 고심을 하고있다. 지금까지 영위하여 오던 낙농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고 그만둘 것인가. 더욱 소규모의 낙농을 걱정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낙농업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낙농가들이 우유대 보다는 소 판매대로 재미를 보아왔었는데 이제는 소 판매대는 목돈이 못되고 푼돈이 되고 있으므로 유대에 기대를 걸게 되었으므로 한 팔이 잘려나간 그런 느낌인 것이다. 소규모인 목장으로 남의 손을 빌지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곳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겠으나 남의 손만을 빌려서 하는 낙농목장은 서서히 도태될 것으로 86년은 이 전환점에 이른 것이다.

## 2. 재고누증으로 유업체도 어려웠다.

유제품의 재고를 사상 최고로 기록하면서 유

업체들은 자금압박에 많이 시달렸다. 유제품의 재고는 많고 소비는 여의치 않고 이러므로 유업체들은 서로 덤핑판매에 열을 올렸다. 마치 중동의 석유값이 덤핑으로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전지분유에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지분유를 재고로 가지고 있던 유업체는 어느 유업체고간에 손실을 보았고 심지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재고는 결국은 신규낙농가의 우유를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였고 또 일부 유업체에서는 기존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도 일정량 이상은 받지 못하겠다고도 하여 많은 낙농가들은 구걸납유를 하였고 또 일정량 이상의 우유가 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즉 일부이기는 하지만 현재 여기 저기서 논의되고 있는 우유계획생산이 실시되고 있기도 하였다.

## 3.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당국의 조치

우유가 체화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제도적인 뒷바침이 없는 상태하에서의 행정당국의 실무자들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남은 우유를 남지않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실무자로서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6년도도 실무자로서는 분주한 한 해였다.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조치는 농수산부 당부의 힘으로는 해결키 어렵고 대부분이 타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고

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다. 학교우유급식은 체육부와 문교부, 군우유급식은 국방부, 수입되는 유제품의 감축은 상공부, 보사부등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여러가지 조치가 취하여졌다. 물론 낙농가의 입장, 또는 유업체의 입장에서는 만족치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완전한 만족이란 언제나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보니 그런데로 합격점에는 이른 것으로 본다.

첫째 학교급유급식과 군우유급식이 대폭증대되었다. 군우유급식으로 인하여 협동조합과 사유업체간에 틈이 생기는 하였으나 군우유급식의 증대는 우유체화를 둔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 둘째 아이스크림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다. 76년 특별소비세가 제정되면서 연례행사와 같이 매년 아이스크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건의 또는 진정을 되풀이하였으나 그때마다 “세수결함”을 이유로 들어 우리의 주장을 묵살하였으나 86년 7월 1일을 기하여 면제시켰다. 셋째 카제인을 자유화품목에서 감시품목으로 묶은 조치다. 수입자유화품목을 감시품목으로 묶는다는 것은 국내여론은 물론 국제여론등으로 실시가 어려운 일이나 실시되었다. 더욱이 곧자에 수입자유화압박을 내외로 받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카제인을 86년 6월 30일자로 감시품목으로 묶었다. 80년도에도 유당과 함께 카제인을 감시품목으로 묶으려하였으나 유당만이 묶였고 이 카제인은 묶이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카제인은 매년 그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또 이 카제인을 원료로한 모조분유의 생산 또는 증가하였던 것이다. 넷째 대용유 원료용 탈지분유는 수입을 중지하고 국내산을 사용토록 하였다. 낙농가들의 희망갈아서는 대용유 원료용 유장분말의 수입까지도 중단되었으면 하였으나 그것은 욕심에 불과하였다. 이외 수입되는 유제품들도 그 수입량을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86년도는

유제품의 수입이 전년대비 15%정도 감량수입되었다.

85년도의 조치였지만 우유포장규격을 180cc를 200cc로 확대한 것이 그 효과는 86년도에 크게 일어 전년대비 우유소비 증가분중 12%는 이 포장규격 확대로 인한 것이고 보니 그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 4. 낙농가들도 우유판매의 일익을 담당

낙농가는 우유만 생산하고 판매는 유업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까지의 낙농가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유가 체화되고 원유대지급의 압력을 받게되므로 유업체들도 낙농가에게 원유대의 일부를 유제품으로 주기도 하였고 또 낙농가 스스로 우유소비를 위하여 유제품을 구입하고 또 이웃에게 홍보하여 판매하는등 낙농가들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우유소비를 위하여 많은 힘을 썼다. 그러므로 많은 목장에서 우유를 할때 음료수를 주던 것을 우유로 대체를 하였고 각 낙우회 사무실에는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놓고 우유를 접대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생산한 우유는 내가 판매한다”는 자세로 우유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또 대용유 대신 모유를 송아지에게 먹이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 5. 집유제도개선등 논의가 무성하였다.

집유제도, 우유검사제도, 원유대산정방법 및 우유계획생산등 낙농에 관한 갖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검토가 활발한 한해였다.

76년 11월 20일에 집유동결조치후 바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되었었으나 묘한 방법이 나서지 않아 차일피일 현재에 이른 것이다. 후속조치가 간단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시행방법을 검토하여 보면 어려운일이 많아 시행치 못하곤 한 것이 10년이 흘렀다. 우유가 잉

여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지니 또 다시 이 문제가 풍성하게 논의 되었다. 년초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보아서는 연중 실행에 옮겨 지는가 기대를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어려운 일이라 실행을 못보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집유 일원화, 우유검사공영화, 원유대산정방법 그리고 계획생산제도등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검토하면 검토할 수록 어려움이 따르고 소리를 내면 낼 수록 반대의견이 또한 커져 미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마저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여러곳에서 검토된 안이 나왔고 모든 안의 공약수는 일치하고 있으니 급년에는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씨를 뿌리고 가꾸어 놓았으니 새 해에 기대를 건다.

## 6. 소규모 목장은 도태되고 있다.

낙농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목장은 급격히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호당 젖소사육두수가 많았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는 10두인데 비하여 일본은 26두가 되었으며 매년 호당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 즉 영세낙농으로는 유지가 될 수 없으므로 소규모목장은 도태되거나 또 유지하자면 두수를 늘려야하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86년을 기점으로하여 경영규모를 확대치 않고도 낙농목장의 경영은 어려워지며 또 인건비도 절감을 하여야 한다. 관리인 2명을 두던 목장은 1인만 두고 1인몫은 주인이 카바하여야 한다. 종전과 같이 전부 관리인에게 맡겨서는 목장유지가 안된다. 목장경영을 잘하면 흑자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 도산하게된다.

86년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유업체도 또 낙농가들도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정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잘만하면 낙농산업은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플라스틱 포장된 우유제품의 등장

부분적으로 탈지된 우유를 캔 포장한 제품이 등장하였다. 영국의 우유유통원이 시도한 이 제품은 소프트드링크로 판매되는 이는 UHT 방법으로 살균한 제품과 비슷한 맛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포장된 우유제품은 다른 소프트 드링크와 같이 야외에 출타했을때 쉽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포장자체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캡으로 무균적으로 밀봉하게 되어 있는데 "이지오픈링"으로 되어있다. "밀크캔"이라고 명명된 이 제품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수있게 디자인되고 있고 냉각하여

음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체적인 포장은 24개 단위로 트레이에 슈링크포장을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저장기간은 3개월정도가 된다고 한다.

"R201"이라는 기계가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데 분당 35케이스정도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D1001"을 사용할 경우 분당 60팩정도가 처리될 수 있다. 이와같은 제품은 앞으로 장기저장 우유제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 같은 전망이다.

-農開公 食品뉴-스 제공-